

# 정부, '3기 신도시' 4곳 확정

## 국토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해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인천 계양...서울까지 30분내 출퇴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가 1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합의를 들고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을 3기 신도시로 19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100만㎡ 이상 4곳(12만2000호), 100만㎡ 이하 6곳, 10만㎡ 이하 31곳에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하다. 서울 경계로부터 2km이내 신규택지로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 이들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해 있으며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기존보다 2배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이

투입되며 입주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마치면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 신도시는 1134만㎡·6만6000호 규모로 진접·진접읍, 양정동에 위치한다. GTX-B역과 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슈퍼(Super)-BRT(10km, 수소버스)를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을 지원하고 경의중앙선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를 입체화하는 한편, 수석대교를 신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한다.

국토부는 GTX-B역을 신설하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역까지 10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남 신도시는 649만㎡·3만2000호 규모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왕동 등에 위치한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시공 및 하남IC~상사정IC 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단지내 BRT도 신설(하남시정~사정역)한다.

서울 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는 335만㎡·1만7000호 규모로 계양구 굴현동, 중앙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에 위치한다.

인천1호선(박촌역)~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를 신설(8km)하고 국도29호선을 확장(별말로 9km, 4→8차로)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도 신설해 검단지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10분 단축)할 계획이다.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도 신설한다.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천 신도시는 155만㎡·7000호 규모로 과천동, 주안동, 막계동에 위치해 있다.

GTX-C를 조속히 추진하고 과천~우면산간 도로를 지하화하며 과천대로~현릉로 연결도로를 신설(왕복 4차로)한다.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도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한다.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이 단축될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뉴스스

# 서울 법인 창업, 금융업 ↑ 관광숙박음식점업 ↓

## 11월 서울서 법인 2821개 창업, 일자리 1만3273개

11월 서울 창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업은 호조를 보였지만 관광·숙박·음식점업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이 19일 발표한 '서울 법인 창업·일자리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821개다. 산업별로 도소매업 585개, 비즈니스서비스업 360개, 금융업 359개, 정보통신(IT)융합 338개, 콘텐츠 127개,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패션 100개, 도심제조업 73개, 숙박·음식점업 56개, 관광·미스(MICE) 50개, 그 외 기타산업 774개가 창업됐다. 금융업(10.8%) 창업이 전년 동

월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했다. 금융업 세부업종 중에서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유가증권 관리와 보관업, 리추얼펀드관리, 자산운용회사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소매업(6.9%),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패션(4.2%), IT융합(1.2%) 산업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관광·미스(-16.7%), 숙박·음식점업(-14.1%), 도심제조업(-8.8%), 비즈니스서비스업(-6.0%), 그 외 기타산업(-5.4%), 콘텐츠(-3.8%) 산업 창업은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의 법인 창업은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동남권은 크게 감소해 대조

를 이뤘다. 평소 법인 창업 건수가 가장 많은 동남권은 창업법인 수가 가장 크게 감소(-6.7%)했다. 법인 창업에서 2번째로 많은 권역인 서남권은 전년 동월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8.3%)했다. 11월 법인 창업에 따른 신규 일자리는 1만327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1만3273명 중 산업별 일자리 수는 도소매업(2689명)이 가장 많다. 이어 금융업(1870명), 숙박·음식점업(1831명), 비즈니스서비스업(1236명) 순이다. 산업별 일자리는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패션(16%)과 도소매업(3%)은 증가했지만 관광·미스(-34%), 도심제조업(-30%), 숙박·음식점업(-14%) 등 일자리는 감소했다.

뉴스스



"할머니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36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울시, 사고 예방 '산업안전팀' 신설...지자체 최초

외부 산업안전전문가 채용 서울시가 노동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팀'(가칭)을 내년 1월 가동한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작업장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가 산업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노동자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전담하는 산업안전팀을 노동정책과 안에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안전팀은 외부에서 산업안전 전문가를 채용해 팀을 구성한다. 해당 팀은 시 산하 작업장 중 건설

운전, 청소, 정비 경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5개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안전팀은 안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작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정립해 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 시 산하기간에 보급할 방침이다.

뉴스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